

같은 캐릭터, 세 가지 화풍

한 캐릭터를 단순하게, 사실적으로, 나만의 스타일로 그려 보며 내 화풍을 찾아요.

단순하게

동그라미·막대로 3초 안에 알아보게



사실적으로

비례·명암을 살려 진짜처럼



나만의 스타일

내가 좋아하는 선·과장·색으로



나만의 스타일 메모

선 · 굵게? 가늘게? 거칠게?

비율 · 머리 크기, 팔다리 길이

색 · 내가 자주 쓰는 색 3가지

발달 포인트

같은 대상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화풍 인식, 내 표현의 특징을 말로 설명하는 메타 인지가 자라요.

다음 단계 신호

'나만의 스타일' 칸의 특징을 다른 그림에도 일부러 적용하면 작품 세계가 생기기 시작해요.

준비물

- 연필 (HB·4B), 지우개
- 가는 펜
- 색연필이나 마커

이렇게 해요

- 같은 캐릭터를 세 칸에 각각 다르게 그려요
- 세 그림을 비교해 마음에 드는 점을 찾아요
- 아래 메모에 나만의 스타일을 적어 뒤요

아이에게 물어봐요

“세 그림 중 어떤 게 가장 '너다워'? 왜 그렇게 느껴?”

자기만의 표현 방식이 자리 잡는 시기예요. '잘 그렸다'보다 '네 그림이라는 게 보인다'는 말이 훨씬 큰 힘이 돼요.